



# 인터뷰

김정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장

## “AI 시대 장애 유형별 고부가가치 직무 개발 힘쓰겠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장 김정연 본부장이 새로운 리더십 아래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11일 취임한 김정연 본부장은 부임 이후 현장 중심의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며 지역 장애인 고용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권 장애인 고용 정책을 총괄하는 김 본부장을 만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 ▲취임 소감은?

-광주지역본부 본부장으로서 지역사회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광주·전남 통합 기조에 따라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지원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AI 인력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은 디지털 일자리를 확충하고 지역 특화 산업인 첨단 농업 분야의 새로운 고용 모델을 제시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지역의 경계를 넘어 상생 발전하는 광주·전남 고용 생태계를 조성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장애인고용공단 광주본부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면.

-우리 광주지역본부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2만여건 이상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고용 활성화에 기여했다. 단순 노무 위주의 직무에서 벗어나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직무 개발을 지속해 장애인 채용인의 경제적 자립을 이끌어냈다. 이를 위해 광주시장애인체육회와 협력해 관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체육 선수 채용 컨설팅과 업무 협약을 추진했으며 체육 직무 고용이 지역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 광주시장애인미술협회와 연계해 역량 있는 미술작가 풀을 확보하고 의무고용 업체를 대상으로 광주 지역 최초의 장애인 미술작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결실을 거뒀다.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 12개 대기업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협약을 체결하고 설립까지 마쳤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용의무 미이행 대기업들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적합한 고용 모델을 찾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단

의 행정 역량을 집중해 고용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다.

▲올해 지역 장애인 고용 여건에 진단하자면?

-최근 고용 시장은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의 확산이라는 큰 변곡점에서 있다. 광주지역 역시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문화, 예술, 체육, AI 기술 등 신산업 분야로 장애인 고용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는 추세다.

특히 광주시가 추진하는 AI 중심도시 전략에



AI 데이터·문화·예술 등

4차 신산업 고용 모델 제시

공공기관·기업 참여 확대

사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

지역 연계 고용 생태계 조성

포용사회 만들기 힘 모을 것

따라 장애인들도 데이터 라벨링이나 AI 학습 데이터 구축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 이면에는 고령 장애인 비중의 증가와 구인·구직 간의 기술 격차라는 과제도 공존한다. 따라서 공단은 단순 노무 위주의 일자리를 넘어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직무 개발에 박차를 가해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참여 확대 위한 중점 추진 내용은?



-현재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환경 개선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장애인들도 점차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먼저 광주지역본부에서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전년도에 이어 광주시의회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에 그치지 않고 고용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하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의무고용제도 관련 기업의 어려움과 공단의 역할은?

-많은 기업이 장애인 채용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장에 적합한 직무 부재와 사후 관리의 막대한 두려움을 의무고용제도 이행과 관련해 가장 큰 걸림돌로 꼽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나 시설 개선에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은 중견·중소기업에 높은

문턱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공정을 세밀하게 분석해 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를 직접 발굴해 제안, 채용 전 단계에서의 시설 보조금 및 고용 부담금 감면과 고용장려금 등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고용 유지 동력을 확보하고 장애인 고용이 단순한 비용이 아닌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영 효율화의 수단임을 입증해 나갈 것이다.

▲중증장애인과 청년 장애인의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은?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과 청년층에게는 더욱 세밀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에 공단은 구직 역량 강화에서 안정적 근로 유지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로드맵을 가동 중이다.

우선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을 통해 약 3주간 사업체 현장에서 직무 지도원과 함께 미리 실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채용 후 적응률을 극대화한다. 청년 장애인을 위해 드론 정비나 IT 코딩 등 트렌디한 직업 훈련 과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의 현실적인 벽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퇴근 비용 지원과 보조공학기기 보급을 통해 근무 환경의 제약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과 향후 확대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고용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해 타지역 타기관의 고용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공단의 서비스를 집중해 고용의무 미이행 기관이 모두 장애인을 고용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광주지역의 장애인 고용을 선도할 공공영역에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고용의무 이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끝으로 광주지역본부 사업주 및 장애인에게 전할 메시지는?

-광주지역본부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직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업주와 장애인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여러 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안태호 기자

**제65회 2026. 4. 10.(금) ~ 4. 13.(월)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4회 2026. 4. 22.(수) ~ 4. 24.(금)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구례군공설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

주최 전라남도체육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주관 제65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 제34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추진위원회  
후원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청 / 구례군